

미니 프로젝트 상반기 동향 총결산

메가 파노라마 Mega Panorama

-제 1 편-

HEDONE®

FICTIO®

HUMANNATURE®

*트렌드 분석 및 자료제공: 이 순영(트렌드 전문가)

글로벌 HEDONE® 장기적 미래예측시점과 로컬 HEDONE® 미래예측시점 비교

*Expert comments :

트렌드를 예측시점으로 필터링(filtering)하기 위해서는 소시오-컬처(SocioCulture)동향으로 접근하는 *특정 툴(special tools)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세스 예측시점 도출을 위해 앞서 본 프로젝트에서 기획된 네 가지 큐브® : 헤도네®, 휴먼네이처®, 테크놀로지®, 픽티오®를 이용해 약 세 달 동안 국내를 중심으로 특별히 기획하고 취재/분석한 미니 프로젝트 콘텐츠를 *decrypt하는 단계가 부여된다. Decrypt단계가 부여된 미니 프로젝트 콘텐츠들은 글로벌 예측동향 속 지역적/문화적 차별성을 띄는 그 나라의 세분화된 글로벌(glocal) 미래예측 시점이 도출되는 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트렌드는 앞서 다가올 예측시점의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시점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통해 현동향에서 보여지는 세분화된 실질적 현상을 분석하여 다시 한번 세분화하는 거시적 시점의 장기적 안목과 통찰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 사회, 문화 동향을 4가지 큐브를 통해 분리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 진화단계를 분석하고 앞서 예측하는 시점이 바로 예측 트렌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툴(tool)이 된다. 이렇게 분석된 글로벌 큐브®를 통해 크게는 라이프스타일에서부터 작게는 칼라 뉴앙스까지 도출하여 디자인, 제조, 경영 등 각 산업분야 전문필드에 서포트 된다.

기본 베이스 툴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산업방향을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통찰하는 예측트렌드 시점을 위와 같은 큐브나비®로 제시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하는 큐브나비®는 크게는 글로벌 예측 동향을, 작게는 로컬 예측동향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세분화 가치 단계(segmentation value level)가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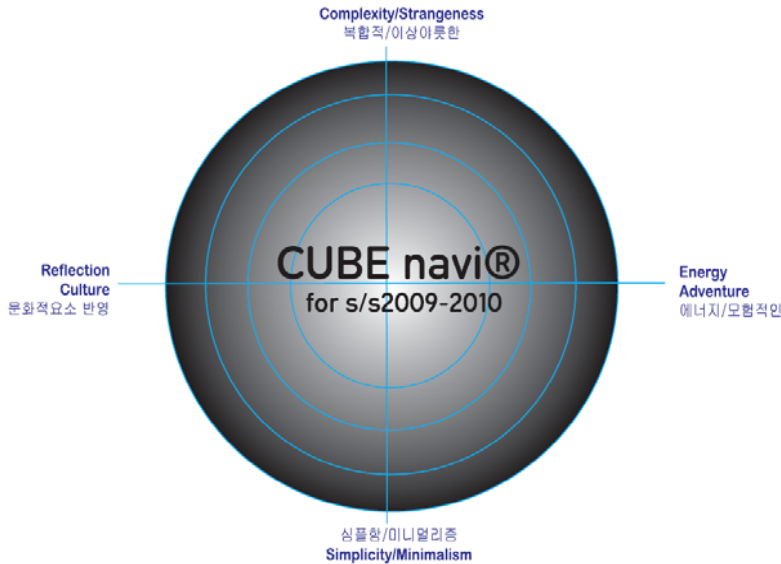
*특정 툴(special tool): 큐브나비®

*Decrypt : 트렌드 전문분야 용어로 키워드를 생성시키고 이를 해독하는 방식의 트렌드의 전형적인 프로세스

*툴(tool): 트렌드 전문분야에서 말하는 '툴'이란 도출된 리서치 단계의 트렌드 콘텐츠를 거시적 시점에서 사회문화 전반에 아우르는 예측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이오그램 마케팅 프로세스

*세분화가치단계(Segmentation value level) : 가치소비레벨(Consumer value level)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미래예측시점을 위한 좀더 거시적 단계의 예측시점의 통찰력을 내포한다.

What's CUBE navi® ?



큐브나비®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축은 글로벌 산업사회를 위한 소시오컬처 진화(SocioCulture Perspective)를 표명하는 커다란 축이 된다. 즉, 전세계의 미래예측시점 동향을 크게 네 가지 현상학적 의미로 부여하여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소비라이프, 산업동향을 포지션 시키는 시점을 도출, 이를 기반으로 미래산업 사회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정해지는 것이다. 보통 년 1회 업그레이드 되어 그 진화점을 점검하게 된다.

‘복합적/이상야릇한’
(Complexity/ Strangeness)

큐브나비® 소시오컬처 테마	소시오 컬처 키워드 정의
세로축-1 ‘복합적/이상야릇한’ (Complexity/Strangeness)	앵글로색슨(Anglo-Saxon) 문화에서 출발하는 복합적인 기상천외함과 이상야릇한 오니릭(oniric:몽환적인 백일몽과 같은)무드가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으로 지배된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집중되는 퓨처리즘(futurism)의 또 다른 해석으로 상상력을 동반하는 모든 ‘어비셀 파우나’(abyssal fauna)의 초자연적 무드가 전개된다.

‘심플함/미니멀리즘’
(Simplicity/ Minimalism)

큐브나비® 소시오컬처 테마	소시오 컬처 키워드 정의
세로축-2 ‘심플함/미니멀리즘’ (Simplicity/Minimalism)	s/s2009-2010시즌 세로축 하단에 위치한 ‘심플함/미니멀리즘’simplicity/minimalism은 디자인 웨일 또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기능(function)과 개념(concept)에 지배되는 동향을 의미하는 키워드이다. 심플함과 미니멀이 만나 스마트(smart) 개념의 시크함(chic)을 표명하는데 이는, 라이프 스타일의 심플함과 그로 인한 개념적인 미니멀 무드를 강조한다.

‘문화적 요소 반영’
(Reflection Culture)

큐브나비® 소시오컬처 테마	소시오 컬처 키워드 정의
가로축-3 ‘문화적 요소 반영’ (Reflection Culture)	큐브 나비® 가로축 ‘문화적 요소 반영’(Reflection Culture)는 지역적 문화 특색을 부각시키는 글로컬(global) 산업동향의 핵심 테마로 최근 미니 부딕이나 개인 디자이너 샵 등의 확산으로 보여지는 에스닉(ethnic)함과 폴크로릭(folkloric) 무드에 집중되는 소시오컬처 동향을 갖는다. 특히, 리사이클 제품 컨셉을 중심으로 여기에 좀더 특색적이고 즉흥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을 특정 지역적 문화 콘텐츠 또는 색감, 그래픽 등을 통해 제시하는 동향이 속한다.

가로축(horizontal spine)-4
‘에너지/모험적인’
(Energy/Adventure)

큐브나비® 소시오컬처 테마	소시오 컬처 키워드 정의
가로축-4 ‘에너지/모험적인’ (Energy/Adventure)	큐브 나비® 가로축 ‘에너지/모험적인’(Energy/Adventure)은 강력한 라이프팅이 서로 충돌하는 듯한 혼란스러운 환타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히, 도심지 방문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도출되는 사인칼라들이 소시오컬처 동향의 주옥스토키가 되고 있다. 스트리트와 아웃도어 라이프를 포커싱하며, 특히, 낮동안이 아닌 밤의 문화와 라이프 연장이 재발견되는 소시오컬처이다.



HEDONE®

미니 프로젝트 상반기 동향 총결산

기간: 2009.05.21 ~ 08.21

조사지역: 국내 로컬 트렌드

<매일매일을 위한 크로메틱 Everyday Chromatic>

*관련 미니 프로젝트 콘텐츠:

-Future insight / Everyday chromatic

-Kitfetish street

-Salvage in the city

-Monsieur Qui

*트렌드 분석 및 자료제공: 이 순영(트렌드 전문가)

페클레 한국공식지사 LISOPHE© All Right Reserved. 2009



Global HEDONE@ 장기적 미래예측시점 >

에브리데이 크로매틱 Everyday Chromatic:

일상속 멀티칼라의 출현을 키치(kitsch)와 하이퍼리얼(hyper-real)로 재주목하는 새로운 스트리트 소비 집단화와 매스마켓을 제시한다. 화려하고 멀티플한 칼라들의 콘트라스트 하모니가 부각되며 프로슈머의 후속인 트라이슈머(trysumer)의 어티튜드가 사회적 정당성을 타파한다. 일상속 빠르게 진화되는 소비심리와 변칙적 마인드가 새로운 소비 제너레이션을 부각, 제3의 문화 '거리'(street)를 주목하는 창조와 시도가 연속되는 또 다른 지속가능성 거리의 트렌드 콘텐츠를 제시한다.

• **에브리데이 크로매틱 Everyday Chromatic > Key Color**

화려하고 액티브한 복합문화 분석을 통해 빠르고 변화무쌍한 현상을 가져오는 크로매틱 칼라의 변천을 리딩한다. 프레피 룩에서 출발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블루와 퍼플에 가깝게 연출되는 리드의 진화, 밝고 경쾌한 그린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하는 일로우의 변화가 주목된다.

• **에브리데이 크로매틱 Everyday Chromatic > 서브테마-1. 스트리트-테크: 'Melting pot creativity'**

기존 감성마케팅이 마침내 마켓 포지션을 갖는다. 바로 스트리트를 중심으로한 감성 마케팅으로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바로 이러한 4가지 요소는 뉴 스탠더드라고 하는 글 로컬 디자인을 추구한다.

• **에브리데이 크로매틱 Everyday Chromatic > 서브테마-2. 키치-테크: 'Borderline'**

변칙적이고 유머러스한 아티(arty)무드를 주목한다. 혼종, 변종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와 유테이션 단계의 새로운 심미성이 소개되며 이에 의한 패키지 디자인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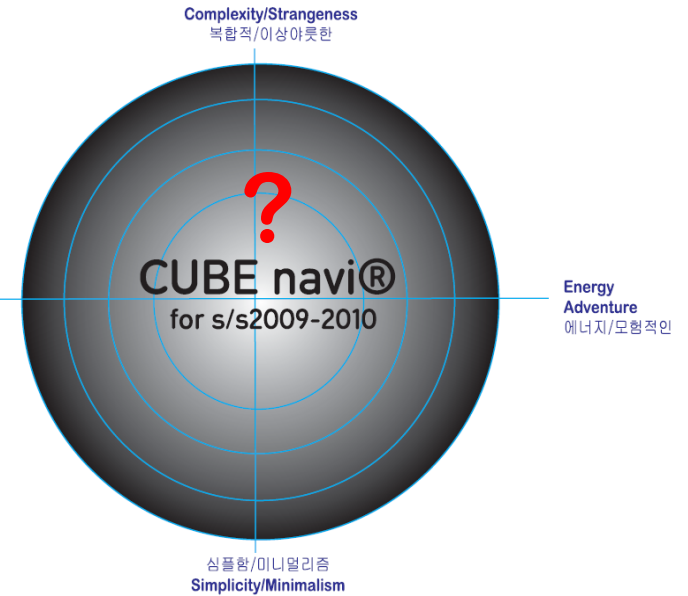
Global HEDONE® 장기적 미래예측시점 >



Global HEDONE® 시즌예측시점 > for 2010



Local HEDONE® 시즌예측시점 >



*** Expert focus:**

앞서 '인스피레이션' 콘텐츠 중 헤도네®에 해당하는 2010년을 겨냥한 글로벌 감성산업사회문화 톨로 **Everyday Chromatic** 테마가 도출되었던 것을 기억하자. **Everyday chromatic**은 또한 **Activist**라는 시즌 테마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Activist**는 헤도네®로 분리되는 글로벌동향을 집중적으로 제시한 시즌 테마이다. 그러나 본 <미니프로젝트 상반기 결산 큐브나비®>에서는 앞서 제시된 글로벌 **Everyday Chromatic** 동향을 국내시점에서만 기획/분석된 미니프로젝트 콘텐츠를 통해 그 성격을 필터링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2010년을 겨냥한 글로벌 헤도네®의 산업,사회,문화 예측 동향이 국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필터링 되고 있는지를 앞서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다. 글로벌과 로컬이 그 어느시대보다 중요해지는 미래산업사회의 현주소를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동향을 통해 재주목하는 필터링 단계라 할 수 있다.



***Global focusing:**

- 소시어 가치 팩토리
- 피킹
- 울트라 플랫&울트라 라이트



***Global focusing:**

- 모션
- 뉴 스탠다드
- 테크놀로지 오마주



Borderline

Everyday Chromatic

Melting-pot creativity

CUBE navi®
for s/s2009-2010

Reflection Culture
문화적요소 반영

Energy Adventure
에너지/모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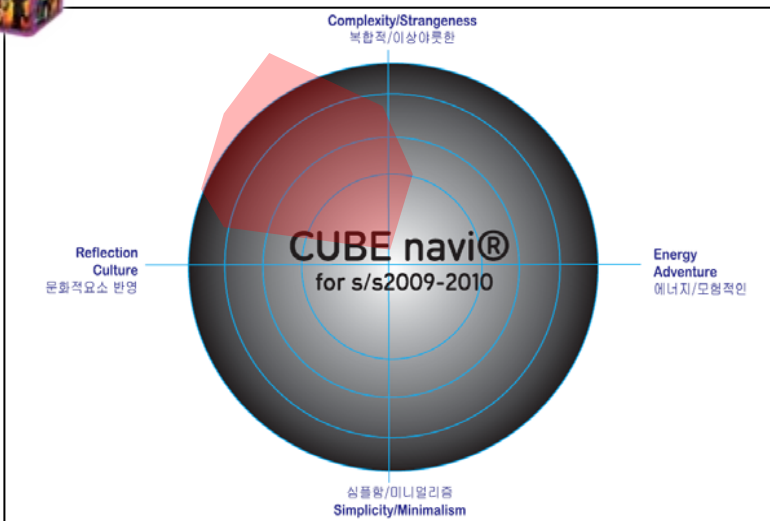
Complexity/Strangeness
복합적/이상야릇한

Simplicity/Minimalism
심플함/미니멀리즘

Local focusing:

* 미니프로젝트 카테고리:

- Future insight / Everyday chromatic
- Kitfetish street
- Salvage in the city
- Monsieur Qui



Complexity/Strangeness 복합적/이상야릇한
 5월부터 8월까지 약 세 달 동안 미니 프로젝트에서 다루었던 소재들은 국내 동향을 중심으로 필터링한 트렌드 콘텐츠들이다. 글로벌 예측 트렌드를 통해 국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관련 콘텐츠들을 분석, 이를 제시하여 'Future insight'에서 다루었던 테마 중 스트리트와 대중문화를 미래예측 트렌드의 중심으로 보았던 'Everyday Chromatic'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Kitfetish와 Salvage in the city, Monsieur Qui로 분리된다. 앵글로색슨 문화에서 출발하는 이상야릇함과 아웃도어 라이프에 집중되는 퓨처리즘(futurism)의 또 다른 테마 어비셜 파우나가 거리 속 상상을 통한 시적우드와 예술적인 문화가치를 확장한다.

Reflection Culture 문화적 요소 반영
 전통과 동시대적 문화를 통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Reflection Culture'축은 지속적인 확장을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도심 프로젝트와 박물관 프로젝트 등이 각광받고 있는 현재, 문화적 요소의 반영은 산업에 있어 또다른 미래적 디자인 가치와 라이프 가치를 제시하는 베이스가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사동, 삼청동과 같은 특정 거리에서 펼쳐지는 일명 '다운사이징(downsizing)' 현상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헤도네®>
Everyday Chromatic

미니프로젝트 'Kitfetish'와 'Salvage in the city'는 서울 지역의 특정 거리를 중심으로 다운사이징 스트리트에 나타나는 칼라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큐브나비®에서 나타나는 'Complexity / Strangeness'와 'Reflection Culture'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주요흐름으로 분석되는 그래피티에 대한 주요흐름과 원조를 찾기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중인 Monsieur Qui를 인터뷰하여 스트리트 감성에 공존하는 에스프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Everyday Chromatic'은 본 트렌드 큐브 중 소비감성과 사회문화 감성의 진화로 정의되는 헤도네®에 집중되는 동향을 볼 수 있다.

> 미니 프로젝트/ 도출시기 20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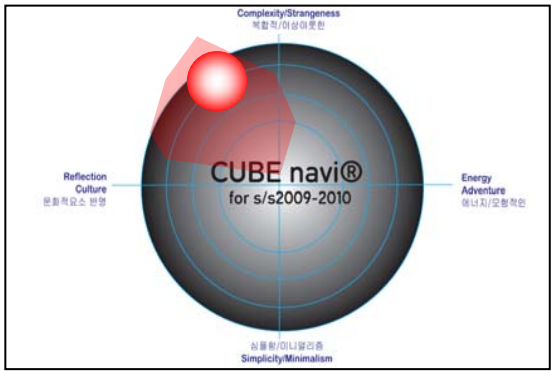


> 미니 프로젝트/도출시기 2009.05



> 미니 프로젝트/도출시기 2009.06





미니프로젝트 2009.05

'Kitfetish'

Complexity/Strangeness 복합적/이상야릇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현존하는 지역 삼청동은 예전 기와집 그대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복원하거나 리뉴얼한 모습들이 대부분의 건물 모습이다.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재 채색한(re-coloring) 칼라들이 눈에 띈다. 독특한 샵(shop)들이 벽 하나를 사이로 집중적으로 모여있으며 10평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샵 매니저의 취향과 안목을 최대한 어필하는 다운사이징(down sizing) 효과가 강조된다. 세계 각지에서 피킹(picking)해온 다양한 오브제가 음식에서부터 신발까지 다양하게 소개되며 길가에는 시대적 발체가 느껴지는 복고적인 각종 오브제가 놓여져 믹스앤매치를 실감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이상야릇한 거리 문화를 어필한다.

Reflection Culture 문화적 요소 반영

삼청동과 인사동'가로수 길'을 중심으로 빈티지 풍이 느껴지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즐비하다. 샬비지(Salvage)는 난파된 보물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시대를 알 수 없는 각종 희귀하고 앤틱한 보물이 가득한 창고와 같은 이미지를 준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인도 심지어 한국의 60/70년대를 보는 것과 같은 등 다양한 에스닉한 오브제와 값싼 예술품과 같은 키치풍 오브제들이 콘트라스트와 하모니를 이루며 제시된다.

Kitfetish street

<Samchung dong>



사진촬영 및 비주얼 촬영: 김세은(트렌드 리서처)
촬영도출: 이 운영(트렌드 전문가)

퍼블릭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 Reserved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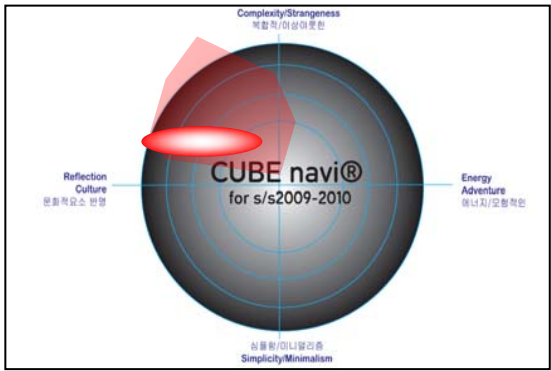
Kitfetish street -제 1편-

사진촬영 및 비주얼 촬영: 김세은(트렌드 리서처)
촬영도출: 이 운영(트렌드 전문가)

Kitfetish street
<Samchung dong>

Vintage-Sign





미니프로젝트 20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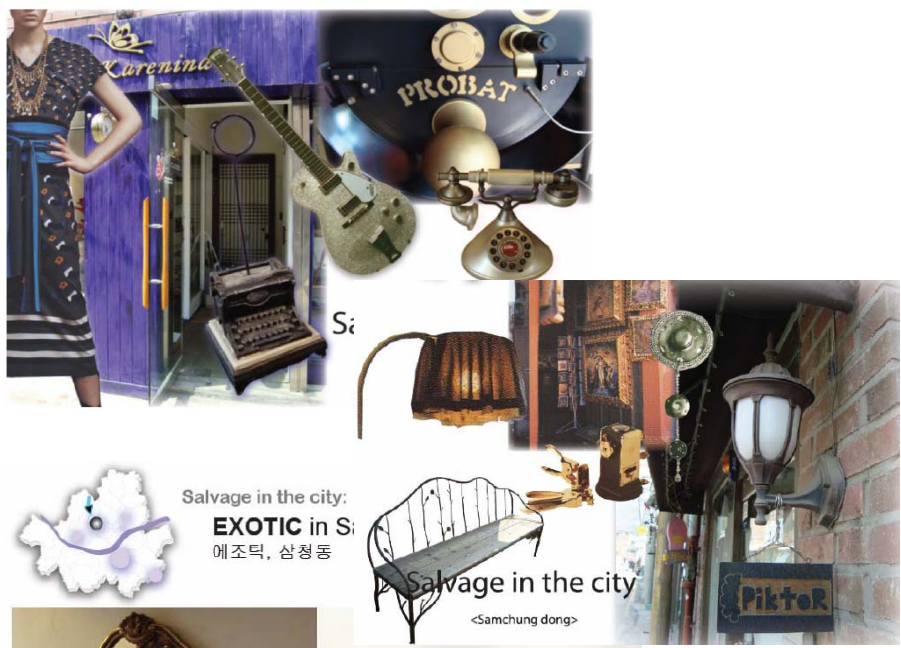
'Salvage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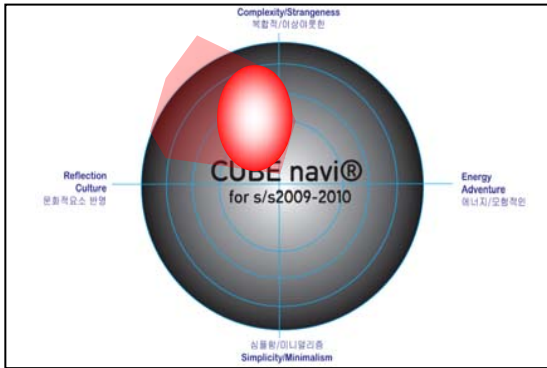
Complexity/Strangeness 복합적/이상야릇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현존하는 지역 삼청동은 예전 기와집 그대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복원하거나 리뉴얼한 모습들이 대부분의 건물 모습이다.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재 채색한(re-coloring) 칼라들이 눈에 띈다. 독특한 샵(shop)들이 벽 하나를 사이로 집중적으로 모여있으며 10평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샵 매니저의 취향과 안목을 최대한 어필하는 다운사이징(down sizing) 효과가 강조된다. 세계 각지에서 피킹(picking)해온 다양한 오브제가 음식에서부터 신발까지 다양하게 소개되며 길가에는 시대적 발체가 느껴지는 복고적인 각종 오브제가 놓여져 믹스앤매치를 실감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이상야릇한 거리 문화를 어필한다.

Reflection Culture 문화적 요소 반영

삼청동과 신사동'가로수 길'을 중심으로 빈티지 풍이 느껴지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즐비하다. 샬비지(Salvage)는 난파된 보물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시대를 알 수 없는 각종 희기하고 앤틱한 보물이 가득한 창고와 같은 이미지를 준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인도 심지어 한국의 60/70년대를 보는 것과 같은 등 다양한 에스닉한 오브제와 값싼 예술품과 같은 키치풍 오브제들이 콘트라스트와 하모니를 이루며 제시된다.





미니프로젝트 2009.06

'Monsieur Qui'

Complexity/Strangeness 복합적/이상야릇한

과거 몇 년전만 해도 아웃사이더 행위예술로 나타나던 몇 가지 요소들이 최근 제3의 문화 '거리'가 부각되면서 복잡적이고 이상야릇한 양태를 갖기 시작한다. 그래피티는 거리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에스프리를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표현하는 거리예술로 최근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젊음과 열정을 어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래피티는 서양의 타이포그래피와 동양의 칼리그래피가 절충되어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로, 건물, 간판, 자동차, 신발, 액세서리, 패션 등 그래피티를 통한 다양한 거리문화 연출이 폭넓어지고 있다.

Reflection Culture 문화적 요소 반영

그래피티의 문화적 요소는 바로 이를 제작하는 연령층과 그래피티스트에게 있다. 특히,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 그래피티를 제작하는 장소와 지역이 중요하다. 최근엔 티셔츠나 스니커즈와 같은 신발, 축구공과 같은 스포츠 제품에 그래피티가 접목되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 스타일링 시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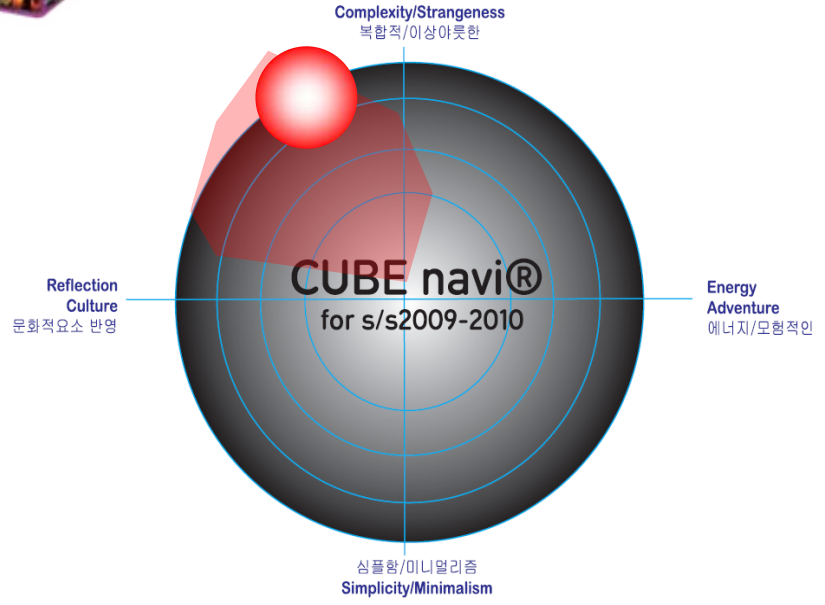
Monsieur Qui,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3의 문화 미니 프로젝트 -제1화-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Monsieur Qui,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3의 문화 미니 프로젝트 -제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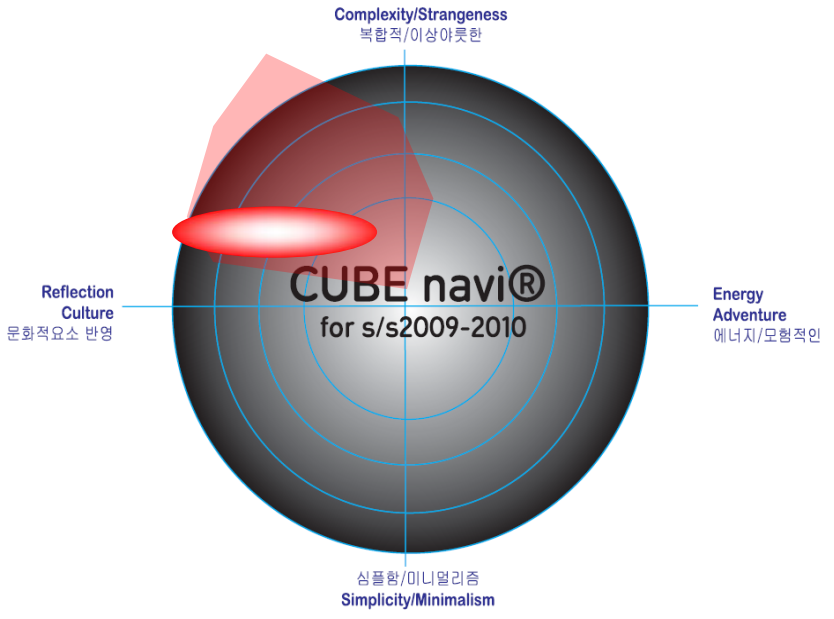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All Rights Reserved 2009



Kitfetish street

Local color panorama

키치(kitsch)와 패티시(fetish)의 합성어로 도출된 키페티시(kitfetish)는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문화 콘텐츠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리에서 나타나는 칼라들로 분석된다. 2009년 칼라트렌드의 영향 아래, 세면 오렌지와 이코노크스트(iconoclast) 블루 칼라가 새롭게 부각된다. 그 밖에도 하모니 칼라에 있어 다크한 브라운과 피그먼트 옐로우, 그린 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선택된다.



Salvage in the city

Local color panorama

도심지 골목길 자체를 마치 난파된 보물선과 같은 희기하고 오래된 클래식한 매력을 어필하는 샬비지(salvage)는 키치와 페티시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빈티지풍 보다는 클래식해 좀더 가까운 엘레강스함이 엿보인다. 특히, 카페와 라이브 음악 등, 개인 샵보다 레스토랑과 카페, 갤러리 등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적 특색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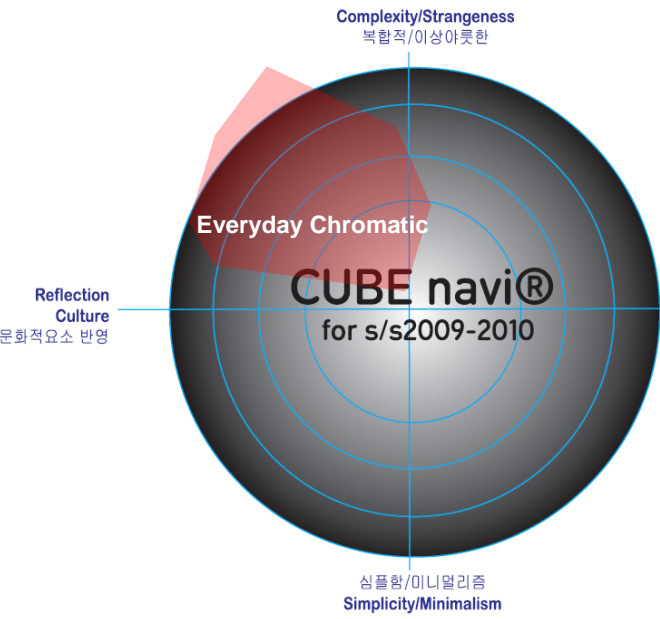


글로벌 예측 트렌드 Everyday Chromatic

SocioCulture Perspective
사회문화 전망

SocioColor Perspective
사회적 칼라 전망

LocalColor Filtering
로컬칼라 필터링



- #5052A3
- #F5A72D
- #3679BE
- #5C4F49
- #CECC7B
- #8E805C
- #492821
- #EF3834
- #ACBF66
- #59AEE1
- #EFD66A
- #121B30
- #35252C
- #3EBFB9